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이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9월 11일)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대학생 전법’ 성공의 기틀 사부대중 원력으로 세운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대회’ 개최
11월11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서
원로 스님, 본사 주지, 이웃종단 등
범불교적 전법기금 마련 행사 추진
“대학생 전법 성패, 불교 미래 달려
전법 기금 마련에 사부대중 동참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최대 화두인 ‘대학생 전법’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사부대중 원력 결집이 이뤄진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0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생 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이하 ‘사부대중 전법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장 돈관 스님과 상월결사 총도감이자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담화 스님이 참석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4주년을 맞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리는 ‘사부대중 전법대회’는 말 그대로 대학생 전법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하고 교구 · 직능별 전법위원들을 위촉하며 인력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안정적인 전법 불사를 위해 안정적 재원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대학생 불교 동아리를 원만히 운영하는 데에는 연간 2000~3000만원 가량의 활동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대학생 포교의 원력을 가진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사비를 출연해 활동비를 보조하거나 어렵게 보시를 끌어오는 형태였다. 그러다보니 신실한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부재할 경우 불교 동아리의 명맥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렇기에 대학생 불교 동아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은 앞으로 대학생 전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2022년 12월 상월결사 창립기념식에서 회주 자승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월결사의 설립 취지는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이다”면서 “심각한 침체에 있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지난 상월결사의 수행과 신행문화의 원력을 대학생전법에 집중하여 한국불교의 미래 동량을 육성하기로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400여 전국대학 중에서 58개의 대학만이 불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활동도 명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돈관 스님은 “이번 ‘사부대중 전법대회’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기둥으로 성장하는 대학생 전법에 튼실한 양분이 되어줄 것”이라며 “금번 전법대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법위원회에 위촉된 전국사찰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지도법사 전법위원과 지도교수님들이 대학생전법에 필요한 근본적인 재원으로서 한국불교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튼실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부대중 전법대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자광 대종사와 원로스님들을 비롯해 총무원장 진우스님, 교구본사 주지스님, 전법위원 등 사부대중 43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대학생 전법에 동참하기로 했던 천태종 · 진각종 · 관음종 · 태고종 · 총지종 · 대각종 등 이웃종단 지도자들도 참여해 대학생 전법이 범불교적 불사임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법대회는 대학생 전법의 중장기 계획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상월결사는 ‘1교구-1대학 불교 동아리 설립’을 기조로 연간 최대 30곳의 불교 동아리를 창립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100곳의 대학에 불교 동아리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 가을 전국 불자 대학생 축제 한마당을 열고 주기적으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 후 호남대, 영산대, 경일대 등에서 불교 동아리가 설립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희망적”이라며 “제25교구본사 주지에 취임하면서 대학생 전법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고, 말사스님들과 전법 불사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학생 전법에 대한 원력을 전국의 모든 사부대중이 갖고, 전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담화 스님은 “자승 스님께서는 ‘대학생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는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고 또 완성’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대학생 전법 성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한국불교 미래를 좌우하는 화두이기 때문”이라며 “일선 사찰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학생 불교를 살리는 일이 한국불교를 살리는 일임을 인지하고 대학생 전법 불사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부대중 전법대회에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영상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 VIP 시사회도 열린다. KBS가 제작한 인도순례 다큐에 불교방송과 BTN불교TV의 영상을 함께 재편집한 작품이다. 러닝타임은 1시간 17분으로 젊은 세대가 상월결사 정신과 불교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편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은 11월 16일 개봉해 전국 100여 개 상영관에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상월청년합창단, 불교문화대전 문을 열다 불교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불교문화대전’이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0월 18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2023 불교문화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불교문화대전’은 10월에 많이 열리는 전국 각지의 불교문화행사를 문화주간에 집중해 불자와 국민들이 불교문화를 향유하는 장으로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10월 31일까지 전국 사찰, 단체 등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진다. 사진은 상월청년합창단원들이 불교문화대전 개막식에서 축하공연을 펼치는 모습. 글=신중일 기자, 사진=윤호섭 기자

“이-팔 전쟁 종식, 평화 기원합니다”

종지협 “살상 · 전쟁에서 승자 없다”
더프라미스, 긴급 지원 모금 전개
세계종교지도자총회서 공동성명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는 10월 13일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이 보이지 않는 무력과 폭력으로 희생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며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호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살상이 전제된 전쟁에서의 승자는 없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이어 “한국 7대 종단 대표들은 전쟁이 격화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폭격과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며 “양측 지도자와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전쟁 중단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종지협은 또 “모든 국가가 상호 협력해 세계평화를 위한 즉각적인 종전 협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무수한 인명피해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종지협은 “전쟁의 희생자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서로가 증오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원하고 온갖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10월 10~11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세계전통종교지도자총회 사무국 회의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사무국 회의에는 11개국 8개 종교 대표 30명이 참가해 세계 공동체가 직면한 환경, 식량, 빈곤, 국가 간 분쟁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종교인을 대표해 참석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 민족의 종교적 관용과 환대의 전통에 따라 여러 다른 종교와 교파가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며 “세계가 처한 문제와 위기를 명확히 바라보고 종교인의 기도와 지혜로 영적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는 지구촌 평화를 발원하며 전쟁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모금을 실시한다. 이스라엘 재난심리전문 구호단체 이스라에이드(IsraAID)와 협력해 이스라엘 전쟁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구호와 심리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더프라미스 이사장 묘장 스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민간인의 희생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구호 활동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재난피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 NGO 단체와 협력해 긴급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모금은 온라인 모금(신한은행 100-035-864047, 예금주: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또는 후원하기 링크(https://bit.ly/45zeziP)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한편,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에 5000발 이상의 로켓을 쏘며 기습 공격했다. 8일 이스라엘 또한 즉시 전쟁을 선포, 팔레스타인 거주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다. 현재 양측에는 4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사망자의 60%가 재난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로 파악됐다.

윤호섭 · 김내영 기자

Korean Buddhist Studies at the Crossroads of Civilization, Bridging a New Future!



한국불교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창립 : 1973년 7월 7일)

문명전환기의 한국불교학
새로운 미래를 잇다

일 시 2023년 11월 3일(금) – 4일(토)
장 소 동국대학교

첫째날 11월 3일(금), 개회식 (장소 : 본관 중강당)
15:30 ~ 18:30
공로패/감사패 수여
한국불교학회 제3회 탄허학술상 수상식
학회 창립 50주년 축하 공연
기조강연 1. 이평래(충남대 명예교수)
“한국불교학회의 반세기 회고, 그리고 나아갈 길”

둘째날 11월 4일(토), 창립 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09:00 ~ 18:00 (장소 : 법학만해관 2층)
기조강연 2. 김용표(동국대 명예교수)
“종교불학의 학문적 성격과 해석학적 과제”
초청강연 1. 모리야 토모에(守屋友江, 일본 남잔대)
초청강연 2. 린챈쿠어(林鎭國, 대만 정치대)
초청강연 3. 모로 시게키(師茂樹, 일본 하나조노대)
초청강연 4. 폴 해리슨(Paul Harrison, 미국 스탠포드대)
초청강연 5. 야마베 노부요시(山部能宜, 일본 와세다대)

분과별 세션 제1분과 초기(부파)불교 / 제2분과 유식불교 / 제3분과 동아시아불교 / 제4분과 불교인식론 / 제5분과 인도철학 / 제6분과 불교와 마음철학 / 제7분과 불교와 문화예술 / 제8분과 현대사회 윤리와 계율 / 제9분과 한국불교(학)의 나아갈 방향
총 44명 발표

▣ 후원계좌 : 국민은행 297601-00-01579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주 소 | (04626) 서울시 중구 필동로 32 낙원빌딩 5층 (사)한국불교학회 / 전화: (02) 2263-1973 팩스: (02) 2263-1974 담당: 010-2474-7411

Since 1973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집행위원회